

6 학생자치

국제캠 대동제 명칭
‘아델란테’로 확정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대동제 명칭이 학생 공모전을 통해 ‘Adelante(아델란테)’로 확정됐다. 해당 명칭은 오는 국제캠 봄 대동제부터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명칭은 서울캠퍼스(서울캠) 대동제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이번 명명은 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추진 중인 ‘학교 브랜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학교 브랜딩은 경희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구성원의 소통과 연대감 향상이 목표다.

대동제 명칭은 학생 공모전을 거쳐 진행됐다. 지난 8일까지 진행됐던 본선 학생투표 결과 277표 중 114표를 차지한 아델란테가 당선됐다. 아델란테는 스페인어로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의미를 가졌다. 이는 우리학교 슬로건인 ‘그대 살아 숨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에서 착안했다. 대동제 네이밍 공모전 수상자 김유진(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22) 씨는 “대동제 네이밍 문구인 아델란테는 구성원을 앞으로 나아가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 착안해냈다”며 “함께 협동해 전진할 수 있는 대동제를 장식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공모를 받아 예선 심사

를 거쳐 공모된 명칭 213개 중 5개 명칭이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 심사 예선 심사위원 1인당 5개 후보를 선정해 중복 횟수가 높은 명칭 5개를 결선에 올렸다. 심사에는 총학 심사위원 3인(▲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위원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 3인(▲공과대학 ▲체육대학 ▲전자정보대학)이 지원해 참여했다. 학교 본부 측에선 학생지원센터 교직원 3인이 포함됐다.

대동제 명명 기획 취지에 국제캠 총학 김미소(한국어학 2021) 회장은 “양캠 축제를 즐기는 주체가 다르면 명칭을 같게 하면 축제 콘텐츠도 통일해야 한다”며 “이원화 캠퍼스의 장점이 양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명명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했다. 윤주은(포스트모던학 2022) 씨는 “취지는 좋지만 양캠을 서로 자주 오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양캠 간에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동제 명칭을 정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양캠의 개성을 살리는 브랜딩은 서로 하나의 집단으로 충분한 교류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캠퍼스 대동제 명칭이 학생 공모전을 통해 Adelante(아델란테)로 확정됐다. (사진=대학주보DB)

I 국제캠퍼스

선거구	입후보 여부	투표 일정
예술디자인대학	O	26일~28일 *학과 2일, 단과대학 3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프랑스어학과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유전생명공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도예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연극영화학과		

I 서울캠퍼스

선거구	입후보 여부	투표 일정
한의과대학	O	18일~20일
호텔관광대학		
의상학과		
국어국문학과	O	25일~27일
문과대학	추후 공지	
자율전공학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물리학과		
약학과		

국제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모두 진행하는 반면 서울캠은 단위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사진=대학주보DB)

양 캠퍼스 학생회 보궐선거 진행

서나는 기자 merlo@khu.ac.kr

양 캠퍼스 학생회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오는 26일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는 단위별로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한다. 국제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모두 진행하는 반면 서울캠은 단위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국제캠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인 예술디자인대학과 14개의 학과(환경학 및 환경공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프랑스어학, 스포츠의학, 스포츠지도학, 유전생명공학, 응용화학, 우주과학, 시각디자인학, 산업디자인학, 도예학, 환경조경디자인학, 의류디자인학, 연극영화학)가 대상이다. 15개 선거구 모두 입후보가 이뤄져

지난 14일 공지됐으며 스포츠의학과는 경선, 그 외 14개의 선거구는 단선이다.

이번 국제캠 보궐선거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기표소는 설치되지 않는다. 김준희(기계공학 2019) 중선관위장은 “작년처럼 오프라인으로 기표소를 설치해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은 재정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궐선거에 한해 전면 비대면으로 결정했다”며 “본인 인증 방식은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권을 가진 재학생은 26일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중선관위장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는 실시간 투표율에 따라 투표 기간동안 추가 발송된다.

서울캠은 현재 비대위 체제인 단

과대학 3개(문과대학, 한의과대학, 호텔관광대학)와 5개 학과(자율전공학부, 국어국문학, 물리학, 약학, 의상학)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문과대학은 25일부터 27일까지, 한의과대학은 18일부터 20일까지, 호텔관광대학은 18일부터 20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국어국문학과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 의상학과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자율전공학부, 물리학과, 약학과는 각 학생회 차원에서 추후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지가 이뤄져 입후보가 이뤄진 선거구는 한의과대학, 호텔관광대학, 국어국문학과, 의상학과다. 문과대학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호텔관광대학은 경선, 한의과대학과 의상학과, 국어국문학과는 단선으로 진행된다.

국제 총학, 회의록·월간 브리핑으로 소통 공약 실천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회의록 공개와 월간 정례 브리핑 시행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총학은 출범 당시 “학생회를 위한 총학생회가 아닌 학생을 위한 총학생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회 운영의) 투명성과 소통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기조의 일

환으로 ▲월간 정례브리핑 실시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학생참여형 축제운영위원회 운영 ▲자치회비 사용내역 투명화 등의 투명성에 관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운영 기조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기존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회의록을 총학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에서는 위원 참석 여부, 논의안

건, 속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달간의 성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월간 정례 브리핑도 시행 중이다. 이는 국제캠 대학소리방송국(VOU)과 함께 제작해 공개한다. 국제캠 총학 김미소(한국어학 2021) 회장은 “정례 월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과 결과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는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재정 운용 투명성을 위한 세칙도 매달 결산·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기존 재정 운용세칙은 6개월마다 학생자치기구가 운용하는 재정을 중앙재정운용위원회에 결산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6개월마다 진행되는 결산·보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제캠 총학 김준희(기계공학 2019) 부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생자치기구 재정을 매달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이 납부하는 자치회비가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총학의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우빈(정보전 자신소재공학 2023) 씨는 “총학이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며 “학생 자치에 학생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열어 자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